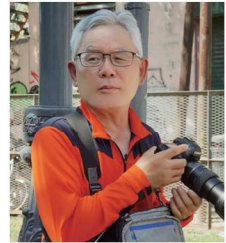


'라떼' 아닌 '러떼'

경제학부 최 병 선



정년소회(停年所懷)를 써달라는 원고청탁을 받았습시다. 그러나 제 생각에 소회(所懷)를 쓰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아서 소회(素懷), 즉 평소 품고 있는 생각을 간단히 적고자 합니다. 이 짧은 글은 과거를 회상하는 '나 때'가 아닌 미래를 꿈꾸는 '너 때'를 위한 단상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교수로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재직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크나 큰 행운이었습니다. 큰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 뛰어난 동료교수님들, 유능하고 친절한 교직원들, 그리고 제 육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관악산,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내실 있고 윤기 있는 교수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학부를 떠나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학생들이 점점 움츠러드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세상살이가 팍팍해지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나, 그 자체로 빛나야 하는 젊은 시절에 앞으로 살아갈 어려움을 예상해서 미리 달팽이 껍질 안으로 기어들어 가려는 듯한 학생들을 보는 늙은 교수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학생 여러분! 이제 부모님의 영향에서 벗어나 조금은 크게 세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갈 세계는 어느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장소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에는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삶의 기본 철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각 개인이 추구하는 효율성이 사회 전체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없음을 절감합니다. '경제인 가설'에서는 사람의 행동이 효용극대화에 초점을 둔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설은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을 차갑게만 느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한 것은 '보이지 않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¹ 경제학의 원래 목적은 인간이 같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학문이었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과 미국 부(wealth)에서 하위 계층 50%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겨우 1.8%이고 우리가 모델로 삼아왔던 미국은 -0.1%입니다.² 더구나 경제위기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위기 속에서 그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이어진다면 국가가 지속 가능할까요? 설사 지속된다고 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평등의 근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예를 사용해서 살펴보기로 하지요. 그림 1은 198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상위 1%와 하위 50%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줍니다.³ 이 기간 동안 미국 상위 1% 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7%에서 20.2%로 거의 직선을 그리면서 상승했고 하위 50% 소득은 20.7%에서 13.1%로 거의 직선을 그리면서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1%는 열심히 일하고 하위 50%는 '노-오락'을 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 했을까요? 그림 2는 1980년에서 2019년까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과 FIRE경제(finance,

1 김정욱, 시장과 공감(Sympathy), 대학신문. 2018. 12. 03.

2 Ingraham, C. 'Parasite' paints a nightmarish picture of Korean inequality. The reality in America is even worse. The Washington Post, 2020. 02. 14.

3 출처: wir2018.wid.world.



insurance, and real estate economy)가 차지하는 비율을 그린 것입니다.⁴ 이 기간 동안 미국 제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5%에서 11%로 거의 직선을 그리면서 하락했고, FIRE경제는 15.7%에서 21%로 거의 직선을 그리면서 상승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날로 심해져 가는 경제불평등의 원인이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이 돈을 버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경제구조 때문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FIRE경제중에서도 불로소득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RE, 즉 부동산입니다. 땅은 공급이 제한된 재화이므로 이를 잘못 운용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상징하는 음습한 경제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문제가 저출산, 교육불평등 등 많은 사회 문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러떼'시대를 살아갈 학생 여러분께 하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도 '러떼'세대를 답습하겠나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부동산 가격에 일희일비할 수 밖에 없는 삶을 살겠나는 것입니다. 저는 '러떼'세대가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서 '러떼'세대의 어깨에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 주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러떼'세대가 평생 살아 오면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있으리라고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러떼'세대를 위해 '러떼'세대가 바뀐다면, '러떼'라는 신조어가 나오지도 않았겠지요. '러떼'의 세상은 '러떼'세대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러떼'세대 여러분은 독서실 수준으로 이용하는 도서관에 앉아서 단순히 나 하나만의 미래를 위한 준비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하여 미래의 내 가족,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제불평등과 같은 경제, 사회, 정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를 살아갈 젊은이들의 특권이 고 미래에 대한 가장 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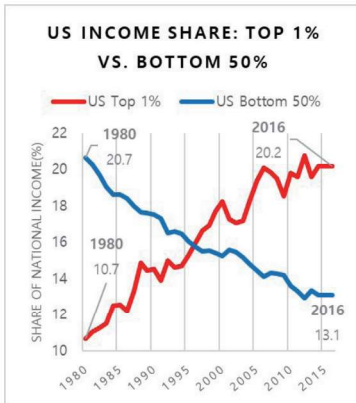


그림 1. 미국의 소득비중 (작성자: J. K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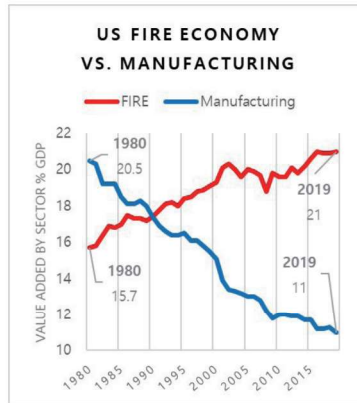


그림 2. FIRE경제와 제조업 (작성자: J. Kang)

4 출처: www.bes.gov.